



70th
Fifty Fathoms
70th anniversary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

Fifty Fathoms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제2장 : 테크 고펬싸

블랑팡은 타마타로아(Tamataroa) 미션이 수행되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랑기로아 아톨(Rangiroa Atoll)에서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기념 행사를 이어갑니다. 블랑팡은 오늘날 테크니컬 다이빙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며 최초의 현대식 다이빙 위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블랑팡 회장 겸 CEO인 마크 A. 하이에크 (Marc A. Hayek)와 고펬싸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로랑 발레스타(Laurent Ballesta)는 혁신 기술로 공동 특허를 획득했으며, 이 기술이 담긴 “테크 고펬싸(Tech Gombessa)”라는 위치를 통해 최초로 최대 3시간의 잠수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시는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의 창립 파트너였던 블랑팡이 제창한 이니셔티브인 고펬싸 10주년과 블랑팡 다이빙 위치 컬렉션의 새로운 라인을 기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하나의 아이콘과도 같은 피프티 패덤즈가 태어났습니다. 이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는 당시 블랑팡 CEO이자 스쿠버 다이빙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었던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echter)가 디자인하여 워치메이킹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초창기 스쿠버 다이빙의 선구자였던 그는 수중에서 시간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필수 사항에 의해 제작한 이 장비는 해양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는 엘리트 дай버 및 수중 탐험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장비로 자리잡았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다이빙 분야의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해양 세계의 발견을 촉진시켰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70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에는 혁신적인 다이버 기념 워치를 선보이며 재탄생을 알립니다. 1950년대 이후 다이빙은 확연히 길어진 잠수 시간으로 인해 중대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1953년의 피프티 패덤즈는 장-자크 피슈테르와 당시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의 요구를 충족했지만, 수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오늘날의 다이버들에게는 시간 측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생겨났습니다. 열정적인 스쿠버 다이버이자 수년 동안 고도의 기술인 폐쇄식 다이빙에 능숙한 블랑팡의 현 회장 겸 CEO 도 그 중 한 명입니다. 1953년 탄생한 피프티 패덤즈의 귀중한 유산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버이자 사진작가, 수중 생물학자인 로랑 발레스타(Laurent Ballesta)와 함께 새로운 워치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장시간 심해 잠수를 통해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고클라 엑스페디션 원정대와 함께 모든 익스트림 다이버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했습니다. 블랑팡의 지원을 통해, 심해 모험가들은 다년간 타마타로아 미션에서 힘을 합쳤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큰귀상어(학명: Sphyrna mokarran) 생태 연구에 전념하는 이 프로젝트는 마크 A. 하이예크와 로랑 발레스타를 포함한 열정적인 심해 다이버 위원회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랑기로아 아틀에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통해 큰귀상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찰하여 생물보존을 촉진하는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에 추가된 신제품 테크 공베싸 위치를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최대 3시간의 테크니컬 다이빙 또는 포화 시스템 종료 시간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년 전 두 명의 다이버가 개발한 이 위치는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블랑팡은 1년 간의 콘셉트 구상 후, 2019년에

무브먼트와 단방향 회전 베젤의 두 가지 핵심 요소와 함께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다이빙 위치의 베젤과 달리 피프티 패덤즈 테크 공베싸의 베젤은 3시간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젤은 3시간에 한 바퀴 회전하는 특수 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소재와 컬러(그린 컬러로 빛나는 화이트 발광 코팅)는 마커와



일치합니다. 세계 최초 장치에 대한 특허는 마크 A. 하이테크와 로랑 발레스타가 공동으로 획득했습니다. 이는 70여년 동안 피프티 패덤즈를 최고의 다이빙 위치로 만든, 동일한 기준의 신뢰성과 견고함을 기반으로 한 13P8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의 핵심입니다.

베젤과 무브먼트 조합에 이어 새로운 위치의 디자

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지침은 명확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테크 공베싸의 고유한 기술적인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피프티 패덤즈의 디자인 코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랑팡의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사파이어 대신 블랙 세라믹으로 된 베젤 인레이를 선택하여 더욱 선명한



곡선으로 다이얼쪽으로 경사진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시각적 왜곡을 줄이기 위해 구형 크리스탈로 다이얼의 가독성이 최적화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최상의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이얼은 새로운 마감 처리를 거쳤습니다. 완전한 블랙 구조로 빛의 약 97%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워 마커는 빛을 발하는 블록 형태의 아플

리케로 구성되며, 블루 컬러로 빛나는 오렌지 컬러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는 시간 관련 정보와 다이빙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 아워 핸드와 미닛 핸드에 사용된 컬러 코드입니다.

케이스에는 23등급 티타늄이 선택되었습니다. 최근 블랑팡 컬렉션에 소개된 이 메탈 소재는 5 EII

(극저삽입) 등급으로도 알려진 가장 순수한 유형의 티타늄입니다. 탁월한 강도를 지닌 저자극성 소재로 매우 가벼워 47mm의 직경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닿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블랑팡 최초로 중앙 러그가 케이스 미들 내부에 부착되어 브레이슬릿이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편안

하게 느껴집니다. 30bar(약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케이스에는 헬륨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압실에서 포화 잠수하는 동안 헬륨이 위치에 스며드는데, 감압 단계에서 밸브를 풀면 헬륨이 배출됩니다(이는 위치의 방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헬륨 밸브의 노치는 시, 분 및 잠수 시간 핸드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와인딩 및 시간 설정 크라운의 노치와 동일합니다. 모든 피프티 패덤즈 워치와 마찬가지로 스크류 다운 크라운이 장착되었으며, 러그와의 시각적 통일감을 선사하는 새로운 트라페즈형 디자인의 크라운 가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워치 뒷면도 치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미들 케이스의 하단 부분은 다른 피프티 패덤즈의 특징인 둥근 '바신(bassine)' 모양이 아닌 베벨 처리되었습니다. 케이스백을 스크류로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노치 역시 견고하게 재작업 되었습니다. 공베싸 엑스퍼디션 로고가 새겨진 엔트러사이트 컬러의 로터는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3개의 큰 창이 있는 혁신적인 형태가 특징입니다. 블랙 러버 스트랩은 러그 뒤쪽에 스크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티타늄 보강재가 있어 오래도록 형태를 보존할 수 있으며 테크니컬 다이빙 수트 위에 워치를 착용할 수 있게 연장 가능한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인체공학적 핀이 장착된 매우 여유로운 버클은 워치를 손목에 단단히 채우거나 연장 가능한 스트랩을 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 테크 공베싸는 방수 및 충격 방지 기능은 물론 재사용 및 설정이 가능한 Peli™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워치 받침대, 연장 가능한 스트랩, 여행용 파우치, 루페 뿐만 아니라 디바이더 세트와 커팅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테크 공베싸의 모든 디테일은 순조롭게 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조건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무수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크 A. 하이예크는 다이빙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프로토타입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로랑 발레스타와 공베싸 엑스퍼디션의 дай버들도 워치의 진화 과정을 테스트했습니다. 공베싸 V 및 공베싸 VI 미션의 일환으로 수심 120미터에서 약 50일의 테스트 기간 동안 4개의 프로토타입이 수중 탐사원의 손목에 착용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1년 각각 지중해에서 실시된 이 탐사는 처음으로 포화 다이빙과 CCR 다이빙을 결합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심해를 탐험하기 위해 5평방미터의 고압실에서 한 달 내내 살았던 дай버들이 다양한 버전의 헬륨 밸브를 테스트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 테크 공베싸 워치는 이 모델을 탐사 공식 워치로 채택한 공베싸 дай버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켰습니다. 이 모델의 출시를 통해,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및 블랑팡과 로랑 발레스타의 10년간 협업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출범한 로랑 발레스타의 공베싸 프로젝트는 매뉴팩처가 창립 파트너로 참여하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에서 이 워치가 출시되면서, 테크니컬 다이빙을 위한 블랑팡 워치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라인인 피프티 패덤즈 테크가 탄생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소개

1953년에 출시된 피프티 패덤즈는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입니다. 다이버의 수중 탐험을 위해 제작된 이 제품은 전 세계 선구적인 다이버와 엘리트 해병대가 전문 시간 측정 장비로 선택했습니다. 방수 기능, 견고한 더블 쉘 크라운 시스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빛을 발하는 인디케이션과 대비되는 다크 컬러 다이얼, 단방향 회전 베젤, 항자성 보호 기능을 갖춘 피프티 패덤즈는 수중 탐사를 떠나는 수많은 다이버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를 전형적인 다이빙 워치로 확립시켜준 주요 시그니처 요소는 전체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다이빙 워치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를

상기시키며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는 현대적인 피프티 패덤즈 모델은 견고함과 신뢰성으로 유명한 현대 무브먼트를 통합합니다. 여기에는 다이빙 분야에서 블랑팡의 오랜 경험과 위험 요소, 필수 조건 등에서 파생된 수많은 기술 혁신이 담겨 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과 해양 세계의 발견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블랑팡은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된 해양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해양 보존에 대한 블랑팡의 헌신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THERE IS ETERNITY
IN EVERY BLANCPAIN

JB
1735
BLANCPAIN
MANUFACTURE DE HAUTE HORLOGERIE